

아리바이오, 中 제약과 7조 규모 독점 판권 계약

등록 2026.05.14 08:45:05



[서울=뉴시스] 아리바이오는 푸싱제약과 'AR1001'의 글로벌 개발·허가·생산·상업화를 위한 7조원(47억 달러) 규모의 독점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아리바이오 제공) 2026.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기업 푸싱제약과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에 대한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아리바이오는 푸싱제약과 'AR1001'의 글로벌 개발·허가·생산·상업화를 위한 7조원(47억 달러) 규모의 독점 판권 계약 (Exclusive Global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 판권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리바이오는 임상 개발에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옵션 비용(Option Fee)으로 6000만 달러(약 900억원)를 우선 수령한다. 여기에 3상 임상시험 톱라인(주요 지표) 발표 시 추가 8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포함해 총 1억4000만 달러(2100억원) 규모의 선급금을 단계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허가 및 상업화 단계에 이를 경우 아리바이오가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포함하면 총 7조원 규모라고 회사는 말했다. 최대 20% 수준의 로열티는 별도라고 했다.

푸싱제약은 한국과 중동,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AR1001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 푸싱은 계약을 기점으로 아리바이오에 대한 직접 투자 논의도 착수했다.

AR1001은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먹는 PDE-5 억제제 계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다. 현재 미국, 유럽, 영국, 중국, 한국 등에서 1500명 이상 환자가 참여한 글로벌 임상 3상(POLARIS-AD)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회사는 올 하반기 톱라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AR1001은 단일 표적에 기반한 기존 치료 접근법과 달리,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와 비정상 타우 단백질 억제, 신경염증 감소, 뇌 혈류 개선, 신경세포 보호 등을 동시에 겨냥하는 다중기전 기반의 치료제다.

아리바이오는 "현재까지의 임상 데이터에선 우수한 안전성과 혈액뇌장벽(BBB) 투과 능력, 초기 환자군에서의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 등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공동대표는 "이번 글로벌 판권 계약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신약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귀광창 푸싱그룹 회장은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AR1001은 혁신성과 글로벌 잠재력 측면에서 특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